

영국특허청, 지재권 해적행위 단속 전략 발표

영국 산업자원부장관은 위조상품 거래의 단속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최초로 지재권 범죄 전략(Intellectual Property Crime Strategy)을 공개하였음

영국특허청은 지난 8월 10일, 지재권 범죄 전략(Intellectual Property Crime)을 공개하면서, 지재권 범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실업을 야기하며, 조직적 범죄에 대한 자금줄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또한 DVD, 향수, 의류 및 주류 등에 대한 불법복제와 위조행위는 자국 경제에 수십억 파운드의 손실을 끼치고 있으며, 자국의 많은 우량기업의 성공을 해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위조행위금지그룹(Ant-Counterfeiting Group)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위조행위 및 불법복제로 인하여 100억 파운드의 경제적 손실과 4,000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고 한다.

영국 특허청이 개발한 지재권 범죄 전략은 브랜드 소유권자, 경찰, 무역표준기관 및 소비자를 함

께 연결하는 것으로, 다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이한 기관간의 정보 공유 증진,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향상, 지재권 범죄 단속에 관련된 기관간의 조정 개선, 연례 국가 집행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진전 상황 및 성공 사례 제공 등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영국 정부가 최근에 설립한 '창조적 산업 IP포럼' (Creative Industries IP Forum)에서 음악산업계 대표로 있는 EMI그룹 회장, 무역표준원(Trading Standards Institute)의 지재권 부장, 위조행위금지그룹 총장을 포함하여 기업 및 민간단체는 위조행위 및 불법복제 단속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환영했다.

중국, 올해 상반기 기술도입계약은 3극을 중심으로 4,065건

중국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자국의 상반기 기술도입계약이
전년도 동기 대비 16.2% 증가, 계약총액 15.8% 증가함

중국 상무부의 통계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에 중국에서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은

4,065건이며(전년 동기대비 16.2%증가), 계약 총액은 64억 4천만 달러(15.8%증가)에 이른다.

일본지적재산교육협회, 제3회 지식재산검정시험 실시 개요 발표

지적재산교육협회는 제3회 지식재산검정시험을 11월 14일 실시한다고 발표. 이번에는 오사카(大阪)에서도 실시함

지적재산교육협회는 11월 14일 실시하는 “제3회 지식재산검정시험”의 개요를 발표했다. 동 시험은 지식재산 관련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부터 大阪에서도 실시하며, 특정 분야의 고도한 전문 지식을 묻는 “1급(특허)”을 새롭게 실시한다.

大阪에서 검정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별 특허출원건수(2002년)가 大阪 2위, 京都 5위, 兵庫 6위로서 近畿권에서 특허 출원수가 많고, 近畿 경제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인접하는 愛知현(특허 출원건수 4위)과 함께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이 모여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부터 실시되는 “1급(특허)” 시험은 특허 분야에서 “과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업의 지식재산 관리부서 등에 근무하는 실무 경험자가 대상이 된다. “국내 출원” “외국 출원” “계약/계쟁” “자사의 지재 전략 책정” 등 주된 특허 업무에 대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동 협회에서는 “상표” “저작권” 등의 전문 분야에 특화된 검정시험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중 기술비가 50억 달러(2%감소)로서 계약 총액의 77.7%를 차지했다.

형태로서는, 노하우·기술 컨설턴트·기술 서비스가 주이며, 플랜트 설비·중요 설비·생산라인의 신장도 현저하다. 특허(실용신안)기술의 도입은 23% 감소하여, 계약 총액의 8.8%에 그쳤는데, 그 이유는 작년 같은 기간에 DVD 특허 기술 라이선스 공여가 합의되어, 도입한 특허 기술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기술 도입처는 50개국(지역)으로 다양하지만, 주요 기술의 유입은 역시 유럽·일본·미국에 집중되고 있다. 유럽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은 56.8%, 북미로부터는 21.4%증가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전자·통신설비, 철강, 교통운수 설비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 중 교통운수업계의 계약이 가장 많은 525건(50.4% 증가)으로서, 대표적인 예는 上海VW와 독일VW의 기술라이선스 합의, 중경장안 포드와 미국 포드의 C195 시리즈 기술이전·라이선스계약, 합비 기차와 일본 미츠비시자동차의 공동 개발·라이선스 합의 등이다. 기술 도입의 지역적 편향도 계속되어 계약금액의 상위 5개 지역은 변함없이 1.상해 2.북경 3.청진 4.강소성 5.홍콩강성으로, 이 5개 지역에서만 전국 계약 총액의 66.1%를 차지하고 있다.

제공 지식재산권연구센터

발췌2004/9